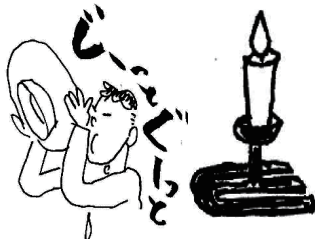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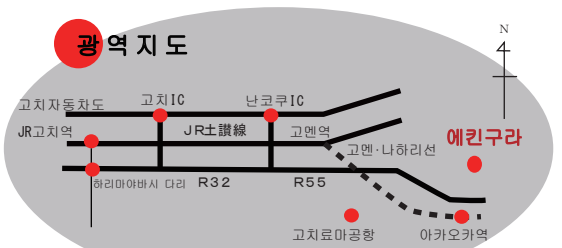


걸어서 둘러보면 재미가 두 배  
걸어가며 즐기는 거리, 아카오카.



아카오카초의 넓이는 1.64km<sup>2</sup>로 동서로 2km도 되지 않습니다.  
아카오카는 작은 곳이지만, 거대한 잔디로 호쾌하게 술을 단련해  
마시는 「도로메 축제」나 「에킨 축제」로 매년 관광객이 무척 대거  
전국에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찍이 이 주변에서도 가장 상업이  
발달한 곳으로, 오랜 상가(商家)가 남아 있는 이 거리에는 기와나  
나무, 종이 등의 천연소재로 만들어진 것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지금도  
맞은편 세 집, 좌우의 두 이웃집이 모두 가족처럼 살아가고 모습이  
남아 있어, 아직도 이렇게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구나 하며  
아카오카의 팬이 되시는 분들도, 여러분도 꼭 이 거리를 둘러보아  
주십시오.



【교통기관】(交通機関)

자전거 고치시 하리야바시에서 약 30분  
고치료마공원에서 약 10분  
고치자동차도난코쿠(南国)IC부터 30분  
고치역에서 고멘·나하리선 IC에서 약 30분  
아카오카역 하차.

【에킨구라】(絵金蔵)

개관시간 오전 9시 ~ 오후 5시 (입장료 없음) 오후 4시까지  
관람료 성인 500엔 (450엔), 고교생 300엔 (250엔),  
초·중학생 150엔 (100엔)  
※ ( ) 안이 15명 이상의 단체여름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화요일)  
12월 28일 ~ 31일, 1월 1일 ~ 4일

【카페】(サロン)

개관시간 오전 9시 ~ 오후 5시

화가 긴조, 에킨  
도시번의 가신(家臣)  
거리마가의 어용화가로서 그림에  
그려 온 가노파의 화가였다.  
위조사건의 휘말려 성 밖으로  
추방됩니다.

# 絵金蔵

에킨 박물관

그 후 에킨의 속모를 찾아 이  
곳 아카오카초에 정주하게 되고,  
술창고를 화실 삼아 그림을 그  
렸습니다. 「에킨구라」에서 그  
아카오카에 남아 있는 명품 그림  
세계 작품을 소장·표관하고  
있습니다.



전시실 1 【어둠과 에킨】(展示室 1)  
전시실 2 【창고와 도구】(展示室 2)  
전시실 3 【에킨 박물관】(展示室 3)  
모양틀  
수장기

우편번호 780-0510  
高知県香南市赤岡町 5338  
전화 팩스 0887-577-117



E-mail ekingura@mxi.netwave.or.jp  
URL http://www.ekingura.com

양야에 열린 에킨 축제와 에킨 闇と絵金

【전시실·1】(展示室・1)

에킨이 그 채색의 혼란을 섞어 만든 그림 물감과 압도적인 기세의 필체로 그린 사방 6척이나 되는 두 폭 한 쌍의 병풍(그림)

에킨은 촛불에 비추진 수라(修羅)를 묘사한 정(情)풍속화의 세계는 마치 영적이거나 듯한 면적이란 묘기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에킨의 병풍(그림) 어둠 속에서야 말로 그 압도적인 존재감과 이채로움을 한껏 발합니다.

에킨구라에서 그 밤에 열린 그 축제기간의 분위기를 내기 위해 전시실을 어떻게 하여 병풍(그림)의 매력을 더욱 즐기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까. 아카오카 해안의 파도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이 흥미롭니까?

1년에 한번, 문화를 지키기 위한 창고 옛모기 蔵の穴

【전시실·2】(展示室・2)

아카오카에 남아 있는 스물세 작품의 병풍(그림) 지금까지도 아카오카초 내 각 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이라고도 하나, 오랜 세월 상가(商家)의 처마 끝에 놓아 두어 온 그림에 손상된 곳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곳 아카오카의 문화와 병풍(그림)에 대대손 손하기 위해서 작품에 손상하기 위한 창고로서 지어진 곳이 이곳, 「에킨구라」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여전히 꽤 정제(精製)된 모던디자인과 벽에 차에 그림에 내어 그 창에 병풍(그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사 및 작품 제작 공개하며, 정기전이라 그림을 바꾸어 전시하고 있습니다.

에킨 생애의 수수께끼를 풀어 가는 자료실

【전시실·3】(展示室・3)

에킨의 비면에 실린 생애를 여러가지 에피소드와 함께 살펴 보느라 온실인 에도시대 말기, 에킨이 살던 에킨구라 마을에 이곳에 당도하여 술창고를 화살 삼아 지내 오던 시절의 아카오카 거리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수행하고 원관하고 인형(人形) 그 채색의 병풍(그림) 전후 구에 백면화의 미적, 내면(内面) 에킨을 사용한 그림 기반 전황을 전해지는 이야기를 살펴 보느라 6척 1키만, 술에 즐겨 보았구나 에킨이 되어 버린 듯 한구나

364 일



金蔵、美高、洞意、敬載、徳因、親潤、柳栄、友竹、友竹齋、雀七、雀翁

◆「전설」의 인물 사건

전설 이야기가 없는 미적 재능으로 18세에 에도에서 가노파로부터 그림에 배워, 21세에 도사번 가신(家頭) 기리마가의 어용화가가 된 에킨 하야시 노이(에킨의 옛 이름)는 위조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를 상나카무라야의 부락이로 가노 단종의 모사를 그린 에킨은 위조 그림에 그렸다고 탄핵되어, 가노파로부터 파문당하고 어용화가로서의 지위도 해명당하는 전적이 되어 「지정박이로 추방되어 전락의 길에 걷게 됩니다.」 그러나 에킨의 재능에 대한 절망이, 에킨이 모든 것을 어둠 속의 사건으로 역사 지 편에 묻혀져 있습니다.

◆「년의 경인」에서 깨어나는 때 에킨 축제(絵金祭り)

병풍(그림) 현재 1년에 한 번 아카오카초 스루다 하치만구 신사의 제사와 여름 축제 저녁 무렵에만 창고 속에서 꺼어나 상점가의 처마 끝에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원래 이 병풍(그림) 거리의 대갓집 양반들이 스루다 하치만구 신사의 대제에 봉납하기 위해 에킨에게 그렇게 한 것이니 제례에 앞서 전야제가 행해지는 7월 14일에 상가(商家)의 처마 끝에 펼칠 수 있게 된 것이 에도시대 말기부터입니다. 또한 매년 7월의 셋째 주말에 개최되는 에킨 축제는 상점가의 발전을 노마하기 위해 197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카오카초 스루다 하치만구 신사 제사 7월 14일, 15일 에킨 축제 7월 셋째 주 토요일

